



**성인남녀 63% '유튜버' 꿈꾼다**  
월 기대수익은 396만원

최근 한 키즈 유튜버가 9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이 들쭉인 가운데 성인남녀 10명 중 6명 이상이 유튜버를 꿈꾸고 월 400만원가량의 수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이전 전국 성인남녀 35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3%가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버 도전 의향이 있는 연령층은 20대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60.1%) △40대 (45.3%)가 뒤를 이었다. 유튜버를 꿈꾸는 50대 이상 기성세대도 45.1%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5.2%로 여성(61%)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은 유튜버가 될 경우 월평균 3%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버가 되면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하는 셈이다.

유튜버로서 다루고 싶은 콘텐츠는 '일상'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13.9%) △먹방(10.4%) △요리(6.3%) △음악(5.9%) △교육(5.6%) △뷰티(5.1%)가 뒤따랐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이유로는 '관심 콘텐츠가 있어서'가 4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미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33.3%) △미래가 유망할 것 같아서(25.3%)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 것 같아서(22.2%) △취업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10.2%) 등 답변이 이어졌다.

다만 유튜버를 본업으로 삼겠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1.8%는 '일단 도전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부업으로 삼겠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취미로 하겠다는 답변도 28.1%로 나타났다.

**靑 '주52시간 보완' 방침에 中企 "法 유예 아니면 의미無"**

중기중앙회 "제도기간은 처벌면제 아냐...1년 이상 유예 필요"

청와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처벌유예가 아닌 입법유예가 필요하다"며 "1년 이상 유예론"을 고수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제도기간 부여 방안은 처벌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순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전날(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전향적인 보완책을 발표했다. 주52시간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고려해 상당 기간의 제도기간을 두는 방안이 골자다.

황 수석은 "기업들에 주52시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입법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될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제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수석은 오는 11월까지 국회의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기간으로는 중소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주52시간제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도기간은 처벌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근로자가 사후 신고하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말한 제도기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기간) 6개월 정도로 생각된다"며 "최소한 1년 이상 법 자체가 유예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마친 기업은 56%에 불과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뿌리산업은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바 있다"며 "업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5G

애플 아이폰 11

삼성 갤럭시 5G폰 vs 애플 LTE폰

**'200만원대 프리미엄폰' 대전**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 5G에 대한 일 반판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애플의 아이폰11도 국내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하면서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갤럭시 구매 OK "공급 안정화"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삼성 공식 홈페이지와 전국 삼성 디지털 플라자, 모바일 스토어, 이동통신사 매장 등에서 일반판매를 시작한다. 가격은 239만8000원을 시작한다. 가격은 코스모스 블랙과 스페이스 실버 등 2가지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급을 시작 하긴 했지만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 어디를 가든 갤럭시 폴드를 만날 수 있는 건 이달말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6일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한정된 공급량으로 1차부터 3차까지 예약 판매에서 모두 완판 기록을 세웠다. 예약 판매를 진행했던 것은 공급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이다.

일반판매가 시작했다는 것은 공급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량을 40% 늘리며 공급량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밝힌 올해 전세계 갤럭시 폴드 공급수량은 약 70만대다.

◇삼성 "갤폴드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까지 무장"...아이폰 11 시리즈 견제

갤럭시 폴드가 일반판매를 시작하면서 관심을 끄는 건 애플

아이폰11시리즈와의 본격적인 대결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과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폴드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진영을 가다듬었다. 여기에 갤럭시 폴드 일반판매를 시작하면서 구매도 쉽게 됐다.

아이폰11시리즈는 아이폰11과 아이폰11프로, 아이폰11프로 맥스 세 종류로 오는 25일 국내 상륙한다. 후면 디자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미 출시된 국가에서는 전작 판매량을 뛰어 넘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 회사 스마트폰의 비교 지점은 많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한다면 아이폰11은 모두 LTE 전용이다.

가격 비교도 흥미롭다. 최고가 갤럭시 폴드가 239만8000원인데,

'접하지 않는' 아이폰11프로 맥스 512GB 모델은 203만원(자급제, 이동사용 199만1000원)이다. 가격차가 36만8000원인데, 단말 보조금을 고려하면 20만원 정도로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갤럭시 폴드의 최고 지원금은 23만원이다.

아이폰11프로 맥스는 아직 지원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작인 아이폰Xs 맥스의 최고 지원금이 약 1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아이폰11프로 맥스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지난 18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아이폰11시리즈는 첫날 예약 가입량이 전작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그간 고갈됐던 '프리미엄 룩탑에블루션(LTE)폰'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 "제주 노지 밀감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주농협 조합공동법인과 손을 잡고 오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도 노지 밀감(3kg/1박스)'을 1만원에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노지 밀감은 롯데백화점 바이어가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엄선한 상품으로, 사전 당도 선별 작업을 통해 10brix 이상의 당도를 가진 밀감으로 이뤄졌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